

# 미합중국대통령(도널드 J. 트럼프) 연설

일 시 2017년11월8일(수) 오전 11시21분  
장 소 국회본회의장

○의장 정세균 존경하는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과 방문단 여러분!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맹국이자 위대한 나라,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25년 만에 국민 자격으로 방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첫째,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 주신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각별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의원 여러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양 국민의 피와 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일궈 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 동맹을 넘어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유지에 절대적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받는 한미동맹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 ‘행동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역대

그 어떤 미합중국 대통령보다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훌륭한 리더십과 협상력으로 탁월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이 양국 간 우의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머릿돌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현의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연설에 앞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사님,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인사)

(일동 박수)

여러분, 이제 세계의 지도자,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을 소개합니다.

(일동 박수)